



뿔나무하늘소 / *Apriona germari* (Hope, 1831)

구분	설명
생물분류	곤충
속국명	뽕나무하늘소속
과국명	하늘소과
과명	Cerambycidae
일반특징	<p>몸길이는 35~45mm이고 색은 누런빛을 띤 갈색이다. 더듬이는 채찍 모양이고 몸보다 길다. 앞날개는 검은색이지만, 표면에 회색빛을 띤 누런색의 작은 털들이 모여 있어 누런 갈색으로 보인다. 또한 앞날개가 시작되는 부분 근처에 검은 돌기가 많다. 앞가슴등에는 주름이 많고 양 옆에 크고 검은 돌기가 있다.</p> <p>애벌레는 몸길이 약 60mm이고 납작한 원통형이다. 머리는 검은색이고 몸통은 누런빛을 띤 흰색이다.</p> <p>2년에 한 번 나타난다. 7~8월에 나타나며 1~2년생 가지의 껍데기를 물어 뜯고,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표면에 100여 개의 알을 한 개씩 낳는다. 부화한 애벌레는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갉아 먹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아래쪽으로 파먹어 들어간다. 외부로 통하는 구멍을 뚫어 호흡을 편리하게 하고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한다. 성장을 마친 애벌레는 톱밥 같은 가루로 구멍의 앞쪽과 뒤쪽을 막고 번데기가 된다.</p> <p>애벌레는 먹이 식물의 줄기와 가지 속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므로 피해가 크다. 성충은 햇가지의 껍질 또는 열매를 물어 뜯고 즙을 빨아 먹는다.</p> <p>애벌레의 모습으로 겨울을 난다.</p>